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8. Vol. 23, No. 3, 721 - 738

한국판 저장 척도 개정판의 타당화 연구†

현 혜 민　　박 기 환‡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에서는 Frost 등(2004)이 개발한 저장 척도 개정판(Saving Inventory - Revised: SI-R)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타당화한 한국판 저장 척도 개정판(Korean version of SI-R: K-SI-R)과, 수집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강박 신념, 우유부단성과의 상관을 살펴봄으로써 강박 특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척도의 이론적 타당화를 확립하고자 했다. 연구 1에서는 K-SI-R의 개발을 위해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원판과 동일한 '버리지 않음', '어질러짐', '과도한 습득'의 3요인이 추출되었고,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진 K-SI-R을 최종 구성하였다. K-SI-R의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OCI-R-K),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K-SI-R의 변별 및 수렴 타당도도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차 타당화를 위해 연구 2에서는 일반인 388명을 대상으로 K-SI-R의 3요인 구조, 18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또한 K-SI-R과 강박 신념(OBQ-44), 우유부단성(FIS)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해외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수집광, 저장 척도, 한국판 저장 척도, 타당화, 강박 장애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2014) 일부를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기환, (14662)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2-2164-4924, E-mail: psyclinic@catholic.ac.kr

www.kci.go.kr

수집은 감상적인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가치하고 낡은 물건을 버리지 않는 증상을 일컬으며 강박 장애나 강박성 성격 장애의 특성 중 하나로 여겨졌다(Clark et al., 2010). 그러나 수집 증상은 강박 행동 등의 강박 증상과 상관이 낮고 생리적, 인지적 측면 등 다방면에 걸쳐 강박 장애와의 차이점이 꾸준히 보고되면서(Pertusa et al., 2008) DSM-5에는 강박 및 관련 장애 내 수집광(Hoarding Disorder)이라는 새로운 장애로 실리게 되었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또한 수집광은 개인에게 기능 손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수집된 물건을 처리하기 위한 막대한 공적 자원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Clark et al., 2010).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서구 문화권을 비롯하여 홍콩(Chiu, Chong, & Lau, 2003), 일본(Matsunaga, Hayashida, Kiriike, Nagata, & Stein, 2010), 인도(Chakraborty et al., 2012)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점차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수집광을 측정하기 위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는 Frost와 Gross(1993)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은 수집광에게서 쓸모없는 물건을 습득하고 버리지 않는 것,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생활 공간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 수집에 의해 현저한 고통감과 기능 손상이 야기되는 것이 주요 특징임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수집광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예일-브라운 강박 척도(Y-BOCS)에 불과했으며(Frost & Gross, 1993), 이 척도는 수집광 집단을 대상으로 타당화되지 않았고 두 문항으로 수집 증상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묻는 데 그치고 있어(Rosario-Campos et al., 2006), 수집광 증상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이에 Frost와 Gross(1993)는 그동안 연구를 통해 밝혀진 수집광의 특성을 바탕으로 총 22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식 척도인 수집 척도(Hoarding Scale: HS)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추후 24문항으로 개정되었으며 반복된 연구를 통해 우수한 내적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립되었고 임상군과 비 임상군을 구분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이 확인되었다(Frost & Gross, 1993; Frost, Krause, & Steketee, 1996; Frost, Hartl, Christian, & Williams, 1995). 그러나 수집 증상보다 소유물에 대한 신념을 묻는 문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구체적인 소유물을 언급하여 수집광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범주의 소유물을 제한하였으며, 병리적인 수준의 고통감과 기능 손상 측정에 덜 민감하다는 문제가 나타났다(Frost, Steketee, & Williams, 2002). 또한 추후 연구를 통해 과도한 습득이 수집광의 주요 특징으로 밝혀지며 이에 대한 측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Frost et al., 2002). Coles, Frost, Heimberg와 Steketee(2003)는 기존 수집 척도(HS)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총 28문항으로 이루어진 저장 척도(Saving Inventory: SI)를 제작하였다. 이후 Frost, Steketee와 Grisham(2004)은 저장 척도(SI) 문항을 정교화하고 구성 요인 간 관계를 재설정하며 수집광 집단을 포함하는 타당화 작업을 거쳐 저장 척도 개정판(Saving Inventory-Revised: SI-R)을 구성하였다.

이 밖에도 수집광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이 개발되었는데, Hoarding Rating Scale-

www.kci.go.kr

Interview(HRS-I; Tolin, Frost, & Steketee, 2010)는 수집 증상에 대한 핵심 증상을 측정하는 반구조화된 면접지로 다섯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임상가가 0점에서 8점으로 평정한다.

Hoarding Assessment Scale(HAS)도 HRS-I와 유사한 문항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질문지로서 버리길 어려워함, 어질러짐, 습득 충동, 고통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Schneider, Storch, Geffken, Lack, & Shytle, 2008).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I-R과 낮은 상관을 보였고, HAS와 관련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Frost & Hristova, 2011).

이 밖에도 수집광의 인지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Steketee, Frost와 Kyrios(2003)가 개발한 Saving Cognitions Inventory(SCI), 사진을 제시하여 어질러짐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정하는 Clutter Image Rating(CIR; Frost, Renaud, Steketee, & Tolin, 2008), 아동의 수집광 증상을 측정하는 Children's Saving Inventory(CSI; Lewin et al., 2011) 등의 도구들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도구들은 SI-R과 같은 자기보고식 검사를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되어 수집광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Frost & Hristova,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Frost 등(200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저장 척도 개정판(Saving Inventory - Revised: SI-R)을 한국판으로 번안하여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SI-R은 수집 행동을 측정하는 데 가장 널리 쓰이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한다. 연구를 통해 높은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내적 합치도,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지니고 있으며, 일반 집단과 임상적 수준의 수집광을 민감하게 변별하는 도구임이 입증되었다(Frost et al., 2004). SI-R은 총 세 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도한 습득(Acquisition)'은 물건을 모으는 증상과 더불어 강박적 구매나 공짜 물건을 강박적으로 습득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버리지 않음(Difficulty discarding)'은 물건을 버리게 되었을 때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경향이다. '어질러짐(Clutter)'은 모아둔 물건들로 인해 생활공간을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후속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평정과 관찰자 평정을 통해 얻은 어질러짐 측정치 간에 높은 상관이 보고되었다(Frost et al., 2008). 또한 SI-R 총점 및 하위 요인은 수집광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지행동치료 효과를 측정하는 데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Steketee, Frost, Tolin, Rasmussen, & Brown, 2010).

다음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저장 척도 개정판의 요인구조가 다른 표본에서도 안정적으로 확인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2에서 새로운 교차타당화를 시도하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수집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강박 신념 및 우유부단성이 한국판 저장 척도 개정판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강박신념과 우유부단성이 수집 증상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박 신념은 강박 장애의 발병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역기능적 신념으로, 과도한 책임감, 위협에 대한 과대 추정, 사고의 통제, 사

www.kci.go.kr

고의 중요성,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완벽주의가 이에 해당한다(우충완, 신민섭, 권석만, 2010). Clark 등(2010)은 강박 장애에서 보이는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 과도한 책임감, 완벽주의 같은 인지 특성이 수집광에서도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Frost와 Hartl(1996)의 연구에 따르면, 수집광은 단순히 무엇을 저장하고 무엇을 버릴지에 대한 결정만이 아닌 무엇을 먹고 입는지와 같은 일상적인 의사 결정에도 현저한 어려움을 보였다. 즉 자신의 결정에 대해 확신을 지니지 못하고 모든 대안을 고려하며 의사 결정을 지연시키는 역기능적 의사 결정 과정을 지니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Frost & Gross, 1993; Frost & Shows, 1993). 실제로 이들은 기억의 중요성이나 정보 유지를 과대평가하고, 중요한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된 경향을 보였으며 정보 망각을 보다 파국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tl et al., 2004).

수집광은 정보 처리 능력의 결함과 의사 결정의 어려움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Frost & Hartl, 1996),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과 완벽주의적인 강박 성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Frost & Gross, 1993) 우유부단성과의 관련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우유부단성(indecisiveness)은 불확실하고 모호한 것을 두려워하고, 세부사항에 집착하며, 결정할 때 모든 가능한 대안들을 고려함으로써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경향을 의미한다(민병배, 2000).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지나치게 신중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쉽게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과 정보 처리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의사 결정하는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우충완 외, 2010; 정혜윤, 2001). 특히 우유부단성은 수집광의 이른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수집광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여겨진다(Frost, Tolin, Steketee, & Oh, 2011).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광 치료 시 문제 해결 능력 증진, 스트레스 자극에의 직접적 노출이나 상상 노출, 수집 관련 신념의 인지적 재구성과 같은 인지행동기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Kress, Stargell, Zoldan, & Paylo, 2016; Tolin, Frost, & Steketee, 2007).

이에 본 연구는 둘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연구 1에서는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SI-R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요인분석 및 상관 분석을 통해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타당화 한 K-SI-R을 사용하여 연구 1과는 다른 새로운 집단을 대상으로 수집광 증상과 강박 신념, 우유부단성과의 관계를 탐색해 봄으로써 K-SI-R의 이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수집광에 대한 연구 초석을 마련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한국판 SI-R을 개발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함으로써 타당화를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SI-R을 번안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고, 번안한 척도가 수집광 증상 및 구성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원척도의 타당화 연구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 관련 척도들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www.kci.go.kr

(Coles et al., 2003; Frost et al., 2004) 변별 및 수렴 타당도,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원 타당화 연구에서는 변별 및 수렴 타당도,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준거 관련 타당도 확인을 위해 저장인지척도(Saving Cognitions Inventory)와 예일-브라운 강박증상척도(Y-BOCS),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를 사용하였는데, 저장인지척도의 경우 국내에서 번안 및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고, 예일-브라운 강박증상척도는 증상의 유형과 상관없이 강박 장애의 심각도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수집광 증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한계점이 있었다. 이후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타당화 연구(Coles et al., 2003)에서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강박 증상 목록(OCI)을 사용하였는데, SI-R은 강박 증상 목록 중 수집(보관) 하위 척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정돈 하위척도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 증상 목록(OCI-R-K)을 사용하였으며, 저장 척도의 점수가 수집(보관) 하위 척도와는 가장 높은 상관을, 정돈 하위척도와는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ANAS)의 경우 원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SI-R의 총점, 어질러짐 요인, 습득 요인은 각각 부적 정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된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K-SI-R의 총점 및 하위 요인이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와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준거 관련 타당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경기도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200명이었고, 그 중 문항을 빠뜨리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10개의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 190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의 구성은 남자 57명(30.0%), 여자 133명(70.0%)이었고, 평균연령은 만 23.99세(*SD*=7.80)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저장 척도 개정판(Korean version of Saving Inventory-Revised: 이하 K-SI-R). Frost 등(2004)이 개발한 수집 증상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총 23문항이며 리커트식 5점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과도한 습득(Acquisition), 어질러짐(Clutter), 버리지 않음(Difficulty discarding)을 측정하는 3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DSM-5에 기술된 수집광 증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실시와 채점이 용이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진단과 연구에 가장 많이 쓰인다(Frost & Hristova, 2011).

본 연구를 위해 원척도 개발자인 Frost에게 이메일 서신 교환을 통해 척도의 한국어 번안 및 타당화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정확한 원문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연구자가 한국어로 1차 번안하였고 영어권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국내에서

www.kci.go.kr

심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이중언어자 1인이 역번역을 실시하였다. 역번역한 문항을 원문과 비교 후 연구자들이 상이한 것은 재차 수정하여 한국인에게 원판 문항의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해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I-R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척도에 대한 내적 합치도는 과도한 습득 .81, 어질러짐 .91, 버리지 않음 .90이었고(Coles et al., 2003),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으로 보고되었다(Frost et al., 2004). 본 연구에서 얻어진 K-SI의 심리측정적 속성은 결과 부분에 자세히 보고하였다.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 증상 목록(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 - Revised - Korean: OCI-R-K). Foa 등(2002)이 강박 증상들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0점(전혀 고통스럽지 않다)에서 4점(극히 고통스럽다)의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확인, 씻기, 강박사고, 중화행동, 정리정돈, 수집(보관)에 해당하는 6가지 증상에 해당하는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별로 3문항씩 총 18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준석(2007)이 번안 및 타당화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0,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Clark와 Tellegen(1988)이 정적 및 부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0점(전혀)에서 4점(매우 많이)으로 이루어진 5점 척도 상에서 정서를 나타내는 형용사에 대한 본인의 지각된 수준을 평정하게 되어 있다. 정적 정서 10문항, 부적 정서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유정(1994)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2003)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정적 정서 .84, 부적 정서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정적 정서 .79, 부적 정서 .80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연구자가 번안 및 재구성한 K-SI-R이 기존 척도의 3가지 하위 요인들과 부합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을 위해 기존 SI-R 타당화 연구(Frost et al., 2004)에서와 마찬가지로 최대 우도법(maximum likelihood)과 Promax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K-SI-R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세 가지 하위 척도와 전체 K-SI-R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조사하였으며, K-SI-R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2주 간격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K-SI-R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K-SI-R의 총점 및 하위 척도와 강박 증상 목록 척도, 정적 및 부적 정서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www.kci.go.kr

결과 및 논의

신뢰도 검증

먼저 탐색적 요인 분석의 사전 단계로 KMO 표본 적합도(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와 Bartlett검증을 실시하여 K-SI-R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았다. 검증 결과 KMO값이 .91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검증 결과도, $\chi^2(253, N=190)=2516.15$, $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나 수집한 자료가 요인분석이 가능할 만큼 변인들 간에 충분한 상관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과 Promax회전방식을 사용하여 원판과 같이 요인을 세 개로 지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번과 19번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이 선행연구와 같은 요인범주에 포함되었다. 또한 3 문항에서 요인 간 부하량 차이가 .10 미만에 해당하는 교차 부하량(cross-loading)이 나타나 이를 척도에서 제외하였

표 1. 한국판 저장 척도 개정판(K-SI-R)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4	나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리는 게 너무 괴롭거나 시간이 많이 걸려 물건을 버리는 걸 꺼린다.	**.785**	.447	.421
2	나는 물건을 버리는 게 고통스럽다.	**.775**	.395	.438
11	필요하지 않고 둘 공간이 없는 물건을 자주 보관하기로 결심한다.	**.722**	.459	.410
17	물건을 보관하려는 충동을 자제할 수 없다.	**.720**	.473	.537
23	버리고 싶은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	**.709**	.526	.541
1	나는 물건을 버리는 게 힘들다.	**.673**	.257	.250
16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무언가를 보관해 놓으려는 충동이 강하다.	**.649**	.399	.415
20	집안에 어지럽게 쌓여 있는 물건들 때문에 집안 공간을 원래 용도대로 쓸 수 없다. (예를 들면, 요리하기, 가구 사용, 설거지, 청소하기 등등..)	.455	**.809**	.409
14	집에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있어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한다.	.316	**.795**	.439
18	집안에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 있어서 걸어 다니기 어렵다.	.589	**.766**	.455
21	집안에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 가는 걸 통제 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392	**.761**	.394
7	집안에 어지럽게 쌓여있는 물건들 때문에 사회적인, 직업적인 또는 일상적인 활동이 지장을 받는다.	.459	**.601**	.416
8	본 걸 습득해야 하는 충동을 자주 느낀다. (예를 들면, 쇼핑을 하거나 공짜 물건이 주어졌을 때)	.329	.457	**.802**
9	당장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거나 공짜 물건을 습득하려는 충동이 강하다.	.419	.404	**.797**
10	물건을 습득하려는 충동을 자제할 수 없다.	.399	.383	**.703**
15	즉시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실제로 자주 산다. (또는 공짜 물건을 얻는다)	.581	.499	**.699**
22	물건 보관이나 통제할 수 없는 구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409	.484	**.609**
5	만일 내가 원했던 어떤 것을 습득하지 못하면 괴롭거나 기분이 좋지 않다.	.327	.191	**.475**
	고유값(eigenvalue)	6.96	1.44	1.25
	설명량(%)	38.68	7.99	6.92

주. 요인 1: 버리지 않음, 요인 2: 어질러짐, 요인 3: 습득.

www.kci.go.kr

표 2. K-SI-R의 하위 척도 간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

	K-SI-R 총점	버리지 않음	어질러짐	습득
버리지 않음	.88**			
어질러짐	.76**	.54**		
습득	.83**	.54**	.50**	
평균	16.31	7.61	2.17	6.53
표준편차	11.00	5.59	3.02	4.56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	.91	.88	.86	.83

**p < .01.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존 23문항에서 18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53.59%를 설명하였다.

각각의 요인을 살펴보면 요인 1(7문항)은 물건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물건 버리는 걸 힘들어하고 회피하는 성향을 측정하고 있다. 이를 "버리지 않음(Difficulty discarding)"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5문항)는 생활공간의 정상적인 사용이 제한되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지저분하게 물건들이 쌓여있는 성향을 측정하며 "어질러짐(Clutter)"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요인(6문항)은 충동적인 구입과 과도한 습득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과도한 습득(Acquisition)"요인으로 명명하였다.

하위 척도 간 상관은 .50~.54로 유의한 중간 크기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며 총점과 하위 척도 간 상관은 .76~.88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K-SI-R의 문항-총점 상관계수는 .46~.75로 나타났고,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1이였다. 각 하위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버리지 않음 .88, 어질러짐 .86, 과도한 습득 .83으로 나타났다. 즉, K-SI-R의 18문항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주 간격으로 148명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K-SI-R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으로 나타났고, 버리지 않음 .87, 어질러짐 .83, 과도한 습득 .83으로 나타나 K-SI-R이 시간적 안정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타당도 검증

K-SI-R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강박 증상, 정적 및 부적 정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K-SI-R의 총점은 OCI-R-K의 총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OCI-R-K의 각 하위 요인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특히 K-SI-R의 총점 및 하위 척도는 OCI-R-K의 하위요인 중 수집(보관) 요인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정돈 요인과는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상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 K-SI-R의 총점과 수집(보관)척도의 상관과, K-SI-R의 총점과 정돈 척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189)=-6.17$, $p<.001$. 수집광은 수집한 물건을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www.kci.go.kr

표 3. 한국판 저장 척도 개정판(K-SI-R)와 강박 증상, 정적 및 부적 정서와의 상관

	K-SI-R 총점	버리지 않음	어질러짐	과도한 습득
강박 증상	.47**	.43**	.35**	.37**
씻기	.25**	.20**	.17**	.25**
강박사고	.36**	.29**	.33**	.28**
수집(보관)	.69**	.74**	.53**	.41**
정돈	.19**	.15**	.07**	.24**
확인	.26**	.23**	.21**	.19**
중립화	.39**	.35**	.33**	.29**
정적 정서	.04**	.01**	.02**	.08**
부적 정서	.29**	.23**	.27**	.25**

*p < .05. **p < .01.

쌓아두는 것을 주요한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리 정돈과 같은 강박적인 특징과는 관련성을 지니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은 납득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OCI-R-K의 수집과 정돈을 제외한 씻기, 강박 사고, 확인, 중립화 요인과는 .17에서 .39에 이르는 약한에서 중간 정도 수준의 상관을 보여 원 타당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K-SI-R 총점 및 하위 척도들은 부적 정서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에 정적 정서와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집광 증상이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는 데 관련되나, 긍정적인 정서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반영하는 준거 관련 타당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타당화한 K-SI-R을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척도의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론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수집과 관련 있는 주요 변인으로 알려진 강박 신념과 우유부단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으며 임상적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420명으로, 그 중 문항을 빠뜨리거나 응답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32개의 자료를 제외한 최종 388명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의 구성은 남자 118명(30.4%), 여자 269명(69.3%), 무응답 1명이었고, 18세에서 29세가 표본의 78.6%를 이루었으며 평균연령은 만 28세(SD=10.63)였다. 학력은 중졸 이하가 2.1%(8명), 고졸 7.7%(30명), 대학교 재학 48.7%(189명), 대졸 21.6%(84명), 대학원 이상이 19.6%(76명), 무응답 1명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미혼자는 83.8%(325명), 기혼자가 16.0%(62명), 무응

www.kci.go.kr

답 1명으로 응답자의 대다수가 미혼자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저장 척도 개정판(K-SI-R). Frost 등(2004)이 개발한 SI-R을 연구 1에서 본 연구자가 번안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쳐 개발하였다.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0점에서 4점까지 Likert식으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으며, 하위 척도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버리지 않음 .90, 어질러짐 .86, 과도한 습득 .86으로 나타났다.

강박신념질문지 -44(Obsessive Beliefs Questionnaire-44: OBQ-44).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OCCWG, 2005)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강박장애에 핵심적인 신념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Likert 척도로 1점(전혀 동의 안함)에서 7점(매우 동의함)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도한 책임감과 위협에 대한 과대추정(Responsibility/Threat overestimation: 이하 RT),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Perfectionism/Certainty: 이하 PC), 사고의 중요성과 통제(Importance/Control of Thought: 이하 ICT) 세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병배(2000)가 번안한 OBQ-87에서 해당 문항을 골라 사용하였다. OBQ-44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5, 각 하위척도들의 내적 합치도는 .89~.93 범위였으며(OCCWG, 2005), 본 연구에서의 전체 척도 내적 합치도는 .95, 하위 척도 중 과도한 책임감과 위협에 대한 과대추정의 내적 합치도는 .89,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내적 합치도는 .89, 사고의 중요성과 통제의 내적 합치도는 .89로 나타났다.

우유부단 척도(Frost's Indecisiveness Scale: FIS). Frost와 Shows(1993)가 강박성향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 및 우유부단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식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총점이 높을수록 우유부단함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혜윤(2001)이 번안한 한국판 우유부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혜윤(2001)의 연구에서는 분포가 편포되는 것을 피하고 개인차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판으로 번안하는 과정에서 7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래의 척도대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혜윤(2001)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합치도는 .87,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불안 및 의심 .77, 결정 속도의 지연 .72, 결정과정의 역기능성 .7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우유부단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85이며, 하위 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결정에 대한 불안 및 의심 .73, 결정 속도의 지연 .72, 결정과정의 역기능성 .73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한국판 저장 척도 개정판(K-SI-R)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우선 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살펴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모수추정방법으로는 최대

www.kci.go.kr

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적합도 지수로는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rkey-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 적합도 지수 판정 기준으로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RMSEA는 .08 미만이면 적절한 적합도, .10 미만이면 보통의 적합도로 간주하였다(홍세희, 2000). 더불어 상관 분석으로 수집광 증상과 강박 신념, 우유부단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 및 논의

한국판 저장 척도 개정판(K-SI-R)의 확인적 요인 분석

한국판 저장 척도 개정판(K-SI-R)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 1의 탐색적 요인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CFI	TLI	RMSEA(90% CI)
1요인모형	1373.410	135	.695	.654	.154(.147 - .161)
3요인모형	541.403	132	.899	.883	.090(.082 - .097)
수정된 3요인모형	469.929	130	.916	.901	.082(.074 - .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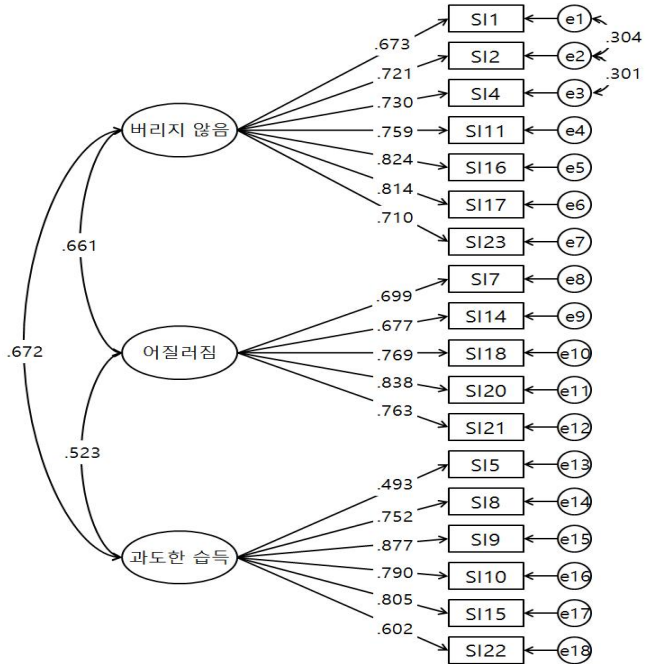

그림 1. 수정된 3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추정치. 오차 변량의 추정치는 생략하였음.
모든 수치는 $p < .001$에서 유의하였음.

www.kci.go.kr

표 5. K-SI-R과 강박 신념, 우유부단성 간의 상관

	K-SI-R 총점	버리지 않음	어질러짐	과도한 습득
OBQ-44 총점	.35**	.29**	.26**	.33**
RT	.37**	.31**	.26**	.34**
PC	.33**	.27**	.21**	.33**
ICT	.24**	.20**	.22**	.21**
우유부단 총점	.39**	.36**	.25**	.31**
결정 속도의 지연	.31**	.33**	.21**	.20**
결정에 대한 불안 및 의심	.29**	.23**	.15**	.30**
결정과정의 역기능성	.35**	.33**	.25**	.27**

주. RT=Responsibility/Threat overestimation, PC=Perfectionism/Certainty, ICT=Importance/Control of Thought.
*p < .05. **p < .01.

분석에서 확인된 3요인모형과 대안모형으로서 1요인모형을 설정하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우선 1요인모형은 적합도 지수가 모두 좋지 않았으며, 3요인모형은 1요인모형에 비해 좋았지만 좋은 적합도 지수의 기준에는 미달하였다. 따라서 해석 가능성(문항 내용들의 지나친 유사함)과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고려하여 모형 수정을 실시하였으며(Brown, 2003; Byrne, Shavelson, & Muthen, 1989; O'Brien, 1994), 문항 1번('나는 물건을 버리는 게 힘들다')과 문항 2번('나는 물건을 버리는 게 고통스럽다'), 문항 2번('나는 물건을 버리는 게 고통스럽다')과 문항 4번('나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버리는 게 너무 괴롭거나 시간이 많이 걸려 물건을 버리는 걸 꺼린다')의 오차항 간 상관을 연결한 수정된 3요인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3요인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표 4에 제시한 것처럼 좋은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연구에서 지지된 수정된 3요인모형에서 나타난 각 문항과 해당 요인 간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 각 요인 간 및 2쌍의 오차항간 상관계수 추정치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요인들과 해당 문항들의 표준화된 계수 추정치는 '버리지 않음' 요인의 경우 .673 - .824, '어질러짐' 요인의 경우 .677 - .838, '과도한 습득' 요인의 경우 .493 - .877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수집광 증상과 강박 신념, 우유부단성 간의 상관관계

수집광 증상과 강박 신념, 우유부단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K-SI-R 총점과 OBQ-44 총점 간의 상관이 중간 정도로 나타났으며 각 척도의 하위 척도 간에도 .20~.37에 이르는 중간 정도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K-SI-R 총점과 우유부단 총점 그리고 각각의 하위 척도 간에도 중간 정도의 유의한 상관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수집광에게서 강박적 신념 및 우

www.kci.go.kr

유부단의 특징을 밝힌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며(Frost et al., 2011; Luchian, Mcnally, & Hooley, 2007), 국내에서도 강박 신념과 우유부단이 수집광과 관련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종 합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취미로 물건을 수집하고 소장하는 측면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치명적인 장해를 초래하고 이웃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집 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Frost 등(2004)이 제작한 수집 행동을 평가하는 저장 척도 개정판(SI-R)을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 하였다. 더불어 타당화한 K-SI-R을 사용하여 수집 증상과 주요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강박 신념, 우유부단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척도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수집광 증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 K-SI-R을 요인 분석하여 원판과 동일한 3요인 구조를 얻었으며 각 요인을 '버리지 않음', '어질러짐', '과도한 습득'으로 명명하였다. 미국인 대상 연구에서 SI-R의 3요인 구조는 대학생, 임상집단, 지역사회 일반인 등 다양한 표본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Kress et al., 2016), 본 연구에서도 3요인 구조가 적절함이 확인되어 SI-R에서 측정하는 수집광 증상의 요인 구조가 범문화적으로 나타나는 안정된 심리적 개념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해외 원 척도의 경우 총 23문항을 3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판과 다른 요인 범주에 포함된 두 문항과 요인 간 부하량 차이가 .10 미만에 해당하는 교차부하량이 나타난 3문항을 제외하여 총 18문항으로 K-SI-R을 최종 구성하였다.

제외된 문항을 살펴보면, "당신의 집안에 어질러진 물건이 얼마나 많습니까?"의 경우 원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어질러짐 요인에 해당하였으나(Frost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버리지 않음 요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의 습득 습관에 대해 얼마나 '화' 또는 고통을 느낍니까?" 문항도 본래 해외 원 척도 상에서 습득 요인에 포함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버리지 않음 요인에 포함되었다. 물건을 버리지 않는 특성과 습득 행동 모두 집안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개념 규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Coles et al., 2003).

요인 간 부하량 차이가 미미했던 3문항은 "내가 가진 물건들이 집안에 어지럽게 쌓여있다.(부엌, 거실, 복도, 침실, 화장실 또는 다른 공간들을 고려했을 때)", "집에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있어 공간을 사용하지 못한다.", "집에 물건이 어지럽게 쌓여있어 고통스럽다."로 모두 어질러짐 특성에 포함되는 문항이었다. 가족 구성원 등 생활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정리 정돈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신 가구에 비해 어질러짐 정도가 크지 않은데(Saxena et al., 2011), 외국과는 달리 부모나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며 부엌, 화장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주거 환경을 가진 대학생의 비율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어질러짐 정도를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상기 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은 원척도와 동일한 요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호한 내적

www.kci.go.kr

합치도와 검사 및 재검사 신뢰도를 보여 K-SI-R이 시간적 안정성을 지닌 척도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OCI-R-K의 하위 요인 중 수집(보관)과 K-SI-R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씻기, 확인 등의 다른 강박 증상과는 중간 정도의 상관을, 정돈 요인과는 가장 낮은 상관을 보여 양호한 변별 및 수렴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또한 원 척도의 타당화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K-SI-R은 부적 정서와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정신병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준거 관련 타당도를 지닌 척도임이 확인되었다(Frost et al., 2004).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K-SI-R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8개 문항으로 구성된 K-SI-R에서도 안정적인 수준의 적합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수집광 증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박 신념, 우유부단성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선행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집광 증상과 강박 신념 및 우유부단성 간에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Frost & Steketee, 1998; Frost et al., 2011; Oglesby et al., 2013; Steketee et al., 2003). 이는 K-SI-R이 타당하며 임상 연구에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타당성을 입증한 K-SI-R은 점차 사회적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수집광을 다루는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수집광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마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수집광과 관련한 국내 첫 연구인만큼 수집이나 저장을 측정하는 기존의 대안적인 척도가 부재하여 준거 타당도를 확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하겠다. 향후 수집광과 관련한 척도 타당화 및 개발을 통해 K-SI-R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수집광 특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응답자 다수가 20대 일반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체 연령에서 나타나는 수집 성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일반화하는 데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응답자 표본을 구성하여 인구통계학적 변인 특성 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집광 진단 기준을 충족시키는 임상 집단과 일반 통제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수집광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K-SI-R을 사용하면서도 Hoarding Rating Scale-Interview와 같은 도구를 이용한 면접이나 사진 평정(Tolin et al., 2010)과 같은 객관적 평가 방법을 도입하거나 제작하여 임상군을 선별한다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한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해질 것이다. 강박 장애군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집광과의 관련성을 살펴봄으로써 수집광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인과관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수집광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민병배 (2000). 강박사고와 걱정: 침투사고 대처과정 및 관련 성격특성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우충완, 신민섭, 권석만 (2010). 강박신념의 강박증상 특이성 검증: 비임상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1), 33-52.

www.kci.go.kr

이유정 (1994). 성격특질이 기분의 수준 및 변화성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935-946.

임준석 (2007). 한국어판 단축형 강박증상목록(OCI-R-K)의 비임상군에서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혜윤 (2001). 강박성향과 우유부단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Brown, T. A. (2003). Confi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Multiple factors or method effec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12), 1411-1426.

Byrne, B. M., Shavelson, R. J., & Muthen, B. (1989). Testing for the equivalence of factor covariance and mean structures: The issue of partial measurement invariance. *Psychological Bulletin, 105*(3), 456-466.

Chakraborty, V., Cherian, A. V., Math, S. B., Venkatasubramanian, G., Thennarasu, K., Mataix-Cols, D., & Reddy, Y. C. J. (2012). Clinically significant hoarding i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Results from an Indian study. *Comprehensive Psychiatry, 53*(8), 1153-1160.

Chiu, S. N., Chong, H. C., & Lau, S. P. F. (2003). Exploratory study of hoarding behaviour in Hong Kong. *Hong Kong Journal of Psychiatry, 13*(3), 23-30.

Clark, L. A., Frost, R. O., Leckman, J. F., Mataix-Cols, D., Pertusa, A., Saxena, S., & Wilhelm, S. (2010). Hoarding disorder: A new diagnosis for DSM-5? *Depression and Anxiety, 27*(6), 556-572.

Coles, M. E., Frost, R. O., Heimberg, R. G., & Steketee, G. (2003). Hoarding behaviors in a large college samp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2), 179-194.

Foa, E. B., Hajcak, G., Huppett, J. D., Kichic, R., Langner, R., & Leiberg, S. (2002). The Obsessive-Compulsive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hort vers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4*(4), 485-496.

Frost, R. O., & Gross, R. C. (1993). The hoarding of possess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1*(4), 367-381.

Frost, R. O., & Hartl, T. L. (1996).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compulsive hoarding.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4), 341-350.

Frost, R. O., & Hristova, V. (2011). Assessment of hoard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7*(5), 456-466.

Frost, R. O., & Shows, R. L. (1993). The nature and measurement of compulsive indecisiveness.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31*(7), 683-692.

Frost, R. O., & Steketee, G. (1998). Hoarding: Clinical aspects and treatment strategies. In M. A. Jenike, L. Baer, & W. E. Minichiello (Eds.), *Obsessive-compulsive disorders: Practical management* (3rd ed., pp. 533-554). St. Louis: Mosby Incorporated.

Frost, R. O., Krause, M. S., & Steketee, G. (1996). Hoarding and Obsessive-Compulsive Symptoms. *Behavior Modification, 20*(1), 116-132.

Frost, R. O., Steketee, G., & Grisham, J. (2004). Measurement of compulsive hoarding: Saving inventory-revised. *Behaviour Research and*

www.kci.go.kr

Therapy, 42(10), 1163-1182.

Frost, R. O., Steketee, G., & Williams, L. F. (2002). Compulsive buying, compulsive hoarding,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Behavior Therapy, 33*(2), 201-214.

Frost, R. O., Hartl, T. L., Christian, R., & Williams, N. (1995). The value of possessions in compulsive hoarding: patterns of use and attachm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8), 897-902.

Frost, R. O., Renaud, S., Steketee, G., & Tolin, D. F. (200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utter Image Rating,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0*(3), 193-203.

Frost, R. O., Tolin, D. F., Steketee, G., & Oh, M. (2011). Indecisiveness and Hoar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4*(3), 253 - 262.

Hartl, T. L., Frost, R. O., Allen, G. J., Deckersbacb, T., Steketee, G., Duffany, S. R., & Savage, C. R. (2004). Actual and perceived memory deficits in individuals with compulsive hoarding. *Depression and Anxiety, 20*(2), 59-69.

Kress, V. E., Stargell, N. A., Zoldan, C. A., & Paylo, M. J. (2016). Hoarding Disorder: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4*(1), 83-90.

Lewin, A. B., Geller, D., McCarthy, K., Muroff, J., Ross, A., Steketee, G., & Storch, E. A. (2011).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Children's Saving Inventory.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2*(2), 166-182.

Luchian, S. A., Mcnally, R. J., & Hooley, J. M. (2007). Cognitive aspects of nonclinical obsessive - compulsive hoarding.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7), 1657 - 1662.

Matsunaga, H., Hayashida, K., Kiriike, N., Nagata, T., & Stein, D. J. (2010). Clinical features and treatment characteristics of compulsive hoarding in Japanese patients with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CNS Spectrums, 15*(4), 231-236.

O'Brien, R. (1994). Identification of simple measurement models with multiple latent variables and correlated errors. In P. Marsden (Ed.), *Sociological Methodology* (pp. 137-170). Cambridge, UK: Blackwell.

Obsessive Compulsive Cognitions Working Group. (2005). Psychometric validation of the obsessive belief questionnaire and interpretation of intrusions inventory-part 2: Factor analyses and testing of a brief ver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3*(11), 1527-1542.

Oglesby, M. E., Medley, A. N., Norr, A. M., Capron, D. W., Korte, K. J., & Schmidt, N. B. (2013). Intolerance of uncertainty as a vulnerability factor for hoarding behavio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45*(2), 227-231.

Pertusa, A., Fullana, M. A., Singh, S., Alonso, P., Menchón, J. M., & Mataix-Cols, D. (2008). Compulsive Hoarding: OCD Symptom, Distinct Clinical Syndrome, or Both?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10), 1289-1299.

Rosario-Campos, M. C., Miguel, E. C., Quatrano, S., Chacon, P., Ferrao, Y., Findley, . . . Leckman, J. F. (2006). The Dimensional Yale-Brown Obsessive-Compulsive Scale (DY-BOCS): an instrument for assessing obsessive-compulsive symptom dimensions. *Molecular Psychiatry, 11*(5), 495-504.

Saxena, S., Ayers, C. R., Maidment, K. M., Vapnik, T., Wetherell, J. L., & Bystritsky, A. (2011). Quality of life and functional impairment in compulsive hoarding.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5*(4), 475-480.

Schneider, A., Storch, E., Geffken, G., Lack, C., & Shytle, R. (2008).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Hoarding Assessment Scale in college students.

www.kci.go.kr

Illness, Crisis, & Loss, 16(3), 227 - 236.

Steketee, G., Frost, R. O., & Kyrios, M. (2003). Cognitive aspects of compulsive hoarding.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4), 463-479.

Steketee, G., Frost, R. O., Tolin, D. F., Rasmussen, J., & Brown, T. A. (2010). Waitlist-controlled trial of cognitive behavior therapy for hoarding disorder. *Depression and Anxiety, 27*(5), 476-484.

Tolin, D. F., Frost, R. O., & Steketee, G. (2007). An open trial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for compulsive hoarding.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7), 1461-1470.

Tolin, D. F., Frost, R. O., & Steketee, G. (2010). A brief interview for assessing compulsive hoarding: The Hoarding Rating Scale - Interview. *Psychiatry Research, 178*(1), 147-152.

Watson, D., Clark, L. 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원고접수일: 2017년 11월 2일
논문심사일: 2017년 11월 21일
게재결정일: 2018년 5월 31일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8. Vol. 23, No. 3, 721 - 738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aving Inventory-Revised(K-SI-R)

Hye-min Hyeon Kee Hwan Park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develop the Korean version of Saving Inventory - Revised(K-SI-R) and validate K-SI-R. In Study 1, Frost et al's(2004) Saving Inventory-Revised was translated into Korean language. Factor analysis for the data of 190 university students showed three factors: Difficulty discarding, Clutter, and Acquisition Problems.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α=.91) and test - retest reliability(r=.86) of K-SI-R were good. The correlations between K-SI-R and the other relevant measures such as Obsessive Compulsive Inventory-Revised-Korean, and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Schedule were revealed as expected, and the validity of K-SI-R was found to be appropriate. In Study 2, three factors were identified based 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mploying 388 participants. In addition, hoarding tendency measured by K-SI-R exhibited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obsessive beliefs (OBQ-44) and indecisiveness (FIS) as in previous studies.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in the present work with possibl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hoarding disorder, saving Inventory, Korean version of SI-R, validation, OCD

www.kci.go.kr